

都市景觀 正體性 把握을 爲한 歷史的 都市記述에 關한 基礎研究

—地理志에 나타나는 清州市의 이미지를 中心으로—

洪亨淳 · 張泰賢

中部大學校 環境造景學科 · 清州大學校 造景學科

A Basic Study on the Historical Description for the Cityscape Identity: The Image of Cheongju in the Archaic Texts of Geography

Hong, Hyoung-Soon · Chang, Tai-Hy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cityscape identi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a modern c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variable view to urban communities for understanding the cityscape identity. We have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archaic texts such as the geography for tracing a cityscape identity to its origin in a city. Because it has been written about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a specific area in the geography based on deep interest to the city, we can look into the early image of the cityscape closely after searching of archaic texts. It is also significant to study with archaic texts of geography since these studies have a correlation to the 'understand of an area' and the 'keeping of historical conscious' which are fundamental of cityscape identity. We have studies on the area of Cheongju from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to the end of this kingdom, since that many geographies were described those days. It was selected "Go-Reo-Sa" Geography(高麗史 地理志) and "Se-Jong-Sil-Lok" Geography(世宗實錄 地理志), "Sin-Jeung-Dong-Guk-Yeo-Ji-Seung-Lam"(新增東國輿地勝覽), "Dae-Dong-Ji-Ji"(大東地志), "Dong-Guk-Yeo-Ji-Ji"(東國輿地志), "Jeung-Bo-Mun-Heon-Bi-Go Yeo-Ji-Go"(增補文獻備考 輿地考), and "Taek-Li-Ji"(擇里志), as archaic texts of geography because these texts described in detail about city and gave a clue to speculate an image of city.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It was described about the cityscape in those archaic texts are ①metaphysical image, ②existing and usable elements of cityscape, ③ lost resources of cityscape. 2) The metaphysical images are neither objective nor consistent in the each archaic texts. But the

metaphysical image of old city suggests good insight for the application to the modern city image. 3) It is necessary to the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he existing elements. 4) There are variable programs about the lost resources of the cityscape, in accordance with the possibility of the restoration. 4) The physical and visible factors and non-physical and invisible factors are equally important elements of the cityscape identity. Our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detail how those factors of cityscape identity have changed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how those factors affect the modern cityscape identity.

Key Words : *cityscape* *identity* *image* *geography*
 都市景觀 正體性 心象 地理志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人口와 施設, 土地 등의 주 요소가 集積함으로써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폐해를 발생시키면서 오랫동안 변화해 왔다. 오랜 기간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풍토와 관습, 역사와 문화가 꾸준히 累積되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樣式(style)¹⁾으로 까지 정착되어 발전해 온 서구의 도시와는 달리 우리의 도시는 일제의 강점기, 해방과 6.25동란 등을 겪으며 역사와 전통의 갑작스런 단절과 급격한 서구 문화의 이입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현대 도시의 모습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과 정서를 적절히 내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울을 칭하여 “싸구려 美國式 都市”(cheap-American city)(이규목, 1992: 297)라 하기도 하며, 지방도시는 이러한 서울을 모방한 결과물로 “미니 서울”(이상구, 1986: 11)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가 강조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우리 나라 도시경관의 조성 방향은 여러 면으로 검토

하여 볼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후기산업 사회에 각 도시가 갖는 경관적 이미지나 도시경관의 정체성은 그 도시의 생존력, 또는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 면적의 확대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로 전국 각 도시의 개성적 도시경관을 훼손하여 획일적이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 읍 면 단위에 이르기까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며 밀집하여 건설된 고층아파트 群을 들 수 있다.²⁾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이나 생활의 質에 관한 시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복원하기 위하여 외인 아파트를 철거³⁾한 것과 같이 경제외적 상황에 따른 환경적 경관적 논리가 우선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모든 도시는 경관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기간과 정치 사회 문화적 변천과 같은 여러 요소가 누적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도시가 경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動因이 되는 초기의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관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한 도시의 초기 이미지들을 밝힘으로

1) style은 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꾸준히 지속, 누적되고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역사성, 반복성, 규칙적 보편성을 갖는 상태를 말하며, 이와 비교되는 용어로 type(型), pattern(原型的 반복), taste(개인적인 기호, 취향), fashion(일시적인 유행) 등이 있다.

2) 이러한 아파트의 외관과 색채는 건설회사 마다 개별화된 기업 이미지(C.I : corporate identity)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특정 회사들의 이미지가 경쟁적으로 강조될 뿐, 도시의 정체성(C.I : city identity)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1994년 11월 20일에 철거비로 1천5백억원을 투입하였으며, T.V로 생중계 되기도 했던 이 행사는 그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등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비해 등한시되던 환경적 논리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 이러한 것들이 후에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요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하는 궁극적인 연구목표에 따른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사

K. Lynch에 의하면 “특정 장소는 다른 장소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기억에 남으며, 주의를 끌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의 요체는 그래픽적인 표현의 색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명확하게 기억에 남고 구별되어지는 정도에 의하며, 관찰자가 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학습에 의하여 증대될 수 있다”(Banerjee and Southworth, 1990: 517)고 하였다. Hough(1990: 179-195)는 현대의 지역경관 형성에 있어서 의도적인 설계행위는 장소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 시켰음을 지적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景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경관’이란 용어 자체의 중요성에 비하여 다의적이며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황기원, 1989)로부터 경관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임승빈, 1991) 등이 있었으며, 경관의 의미와 경관평가에 대한 연구(이영경, 1994; 1997)와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을 미학적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조정송 등, 1998) 등이 있다.

韓國造景學會의 학술세미나(“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 1995)는 도시경관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경관 정체성 概念에 대한 研究로 황기원(1992; 1995)은 文化景觀의 관점에서 그 개념구조를 ‘동질성’과 ‘개별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사개념으로 패적성에 관한 연구(김승환과 변문기, 1991; 김승환, 1995)들이 있다. 특히 패적성을 정체성의 종속·개념으로 파악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패적성이 갖추어진 도시환경에서 시민들이 정체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으며, 패적성 확보가 정체성 확보의 전부

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황기원, 1995: 11)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 都市景觀 이론에 근거한 實證的 研究(이규목, 1986; 1988; 김한배와 이규목, 1993; 1994) 등과 함께, 도시경관의 시대별 특성과 변천과정, 한국 도시경관의 정체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연구(김한배, 1994; 199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별 ‘都市圖形’과 실제 도시경관에 표현된 ‘景觀形式’, 이를 주민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특징적 패턴으로서의 ‘代表景觀’, 이들간의 총체적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景觀 正體性’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구, 경주, 전주 등 각 도시의 경관변천 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 선행된 연구들은 도시경관의 정체성 개념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책적 반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큰 가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 경관에 대한 인문지리, 역사지리학적 연구(정기호, 1990; 1993; 전미경과 정기호, 1995)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地理志에 대한 경관론적 원용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는 私撰地理志인 ‘擇里志’에 국한되었으며, 이전에 편찬된 官撰地理志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경관론적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전해지는 시각적 자료가 빈약한 조선시대의 경관을 연구하는 데에는 이러한 문헌분석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都市像을 파악하여 이후의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대 도시경관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위주의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헌으로는 조선 중기와 후기에 편찬된 地理志 중, 당시의 도시와 생활상을 폭넓게 다룬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古文獻들 중에서 특히 地理志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등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저술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다면 현대의 도시가 갖는 정체성의 근원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이러한 작업은 도시

<表-1> 地理志에 관한 書誌事項

區分	標 題	編纂年代	編纂者	內 容	研究資料
高麗時代의 地理志	「三國史記」(地理志)	高麗 仁宗 23년 1145	金富軾	「三國史記」50卷중 34卷~37卷에 수록. 신라, 고구려, 백제의 지리지로서 당시의 郡縣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일람표에 지나지 않음.	
	「三國遺事」	高麗 忠烈王 1283	一然	王曆(왕대와 연표), 紀異(역사 관련), 興法(불교관련), 神呪(밀교 관련), 感通(부처와 영적 감응), 避隱(고승들의 이적), 孝善(효행 관련).	
朝鮮前期의 官撰 地理志	「高麗史」(地理志)	文宗 1年 1451	鄭麟趾 등	「高麗史」137卷중 56卷~58卷에 수록. 고려시대(918~1392)의 各 郡縣의沿革을 나열한 지명일람표 수준에 지나지 않으나 高麗時代 地理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서의 가치.	○
	「新撰八道地理志」	世宗 14年, 1432		「慶尙道地理志」만 남아있음.	
	「世宗實錄」(地理志)	端宗 2年 1454	孟思誠, 鄭麟趾 등	朝鮮王朝 최초의 官撰地理志로서 世宗實錄 地理志의 原型이 됨. 政治·經濟·社會·歷史·文化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편찬된 人文地理書로 朝鮮王朝의 官撰地理志의 標本이 됨.	○
	「八道地理志」	成宗 8年, 1477		「慶尙道續撰地理志」만 남아있음.	
	「東國輿地勝覽」	成宗 12年, 1481		政治·經濟·軍事關係記錄과 함께 禮·俗·詩文등 유교적 문화요소가 강조됨. 유교문화의 확립기에 집대성된 官撰地理志의 典型.	
	「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 25年 1530	李荇 등	「東國輿地勝覽」의 체제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간행했는데 각 道의 全圖를 신고, 도의 沿革·風俗·樓臺·廟社·官府·學校·宮闕·土産의 종류 및 효자 열녀의 行狀과 驛院 寺社 樓亭 성곽 산천 교량의 위치 名賢의 사적 시인의 題詠을 정연한 체계를 갖추어 수록. 각 방면의 지리 지식이 종합되어 있으며 특히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읊고 노래한 시문들과, 역사적 업적을 남겼거나 도덕적으로 미풍양속의 모범을 준 인물들의 전기 등이 풍부하게 수록됨.	○
朝鮮 後期의 官撰 地理志	「東國地理志」	仁祖 18年, 1640	韓百謙	韓百謙이 중국의 史書 등에서 우리 나라 지리에 관한 것을 발췌하고 私見을 붙여 엮은 일종의 지리적 역사서.	
	「東國輿地志」	顯宗朝 ?		任亂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
	「輿地圖書」	英祖 33年, 1757		各 道志에는 道全圖·道總論·道各論, 各 邑志에는 邑全圖·邑各論이 수록 朝鮮朝 官撰地理志의 完成板.	
	「增補文獻備考」(輿地考)	1808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制度文物史의 귀중한 자료.	○
	「邑志」	光武 3年 1899		忠州郡邑誌, 寧城志(天安郡志), 大籠志(木川縣志), 黃澗郡邑誌 公山志(公州邑志), 青陽邑誌, 新定牙州志(牙山志)	
私撰 地理志	「擇里志」	肅宗 40年 1714	李重煥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지형 풍토 풍속 교통 각 지방의 古事 인물 등을 포괄한 인문지리서의 대표적 저작. 사민총론, 팔도총론, 북거총론 등으로 나뉘며 특히 팔도총론에서 각 도의 일반적 개괄에 이어 다른 도와의 차이와 특징을 밝힘으로써 地方志에 해당하고, 북거총론은 인문지리적 총설에 해당함.	○
	「我邦疆域考」	純祖 11年 1811	丁若鏞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지리를 비판적으로 고증 해명할 목적으로 저술.	
	「大東水經」	純祖 14年 1814	丁若鏞	우리나라 北界를 중심으로 주요 山水에 대한 고증서 「我邦疆域考」의 미진한 하천 수문과 그 유역을 중심으로한 역사 지리를 연구 고증함.	
	「大東地志」	哲宗 13年 1864	金正浩	19세기 후반기 복잡한 국내의 정세와 관련하여 나라의 경제를 바로 잡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유구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작. 각 도의 주, 군, 현 별로 그 지방의 역사, 지리적인 연혁, 행정 중심지와 지방의 구획, 산천과 지형, 군사 시설, 교통, 통신과 운수, 바다와 섬들, 농경지 및 관개시설, 인접 지역과 그 거리, 지방 특산물과 상업, 공공 건물과 명승지, 인물과 풍속, 종교와 문화 유적 등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타 각 부문에 관해 서술. 광범위한 자료와 실지 답사를 통한 우리나라 지지의 집대성.	○

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장소의 이해'와 '역사의 식의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나라의 地理志는 국가가 통치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계획적으로 편찬된 官撰 地理志와 개인적인 관심에서 편찬된 私撰 地理志로 나뉘어지며 후자는 대체로 조선후기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地理志들은 편찬 방법이나 방향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그 내용은 모두 人的 物的 資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기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李成茂, 1981) 본 연구를 위해 예비적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地理志에 관한 기초 서지사항⁴⁾은 <표 1>과 같으며, 이 史料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어 당시의 都市像을 짐작할 수는 내용적 충실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로는 淸州⁵⁾를 선정하였다. 역사 도시이며 성곽도시로 출발한 청주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개발과 규모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주변에 개발가능지가 많은 이유로 비교적 도시가 점하고 있는 산세와 강과 내, 지형 등 기본적인 자연환경의 변화는 적은 도시라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의 청주시가 포함하는 공간적 영역과 고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림-1 참조) 그러나 본 연구의 성격과 목적이 고고학적 고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가 갖는 초기의 이미지 도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주라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의미의 공유는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II. 地理志에 나타나는 淸州의 景觀的 이미지

「高麗史」(地理志)에서의 충청도와 청주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楊廣道는 원래 고구려와 백제의 땅이다. (...성종 14년에 전국을 10개도로 나누고 楊州, 廣州 소속 주, 현은 關內道에, 忠州, 淸州 소속 주, 현은 忠原道에, 公州, 運州 소속 주, 현은 河南道에 각각 소속시켰으며 예종 원년에 이를 통합하여 楊廣忠淸州道로 만들었다. 明宗 원년(1171년)에 다시 2개 도로 분할하였다가 충숙왕 원년(1314년)에 楊廣道로 정했으며 공민왕 5년에 忠淸道로 만들고 京 1개, 牧 3개, 府 2개, 郡 27개, 縣 78개를 관할하였다. ... 淸州牧은 원래 백제의 上黨縣인데 신라 신문왕 5년(685년)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은 西原京으로 승격시켰다. 태조 23년에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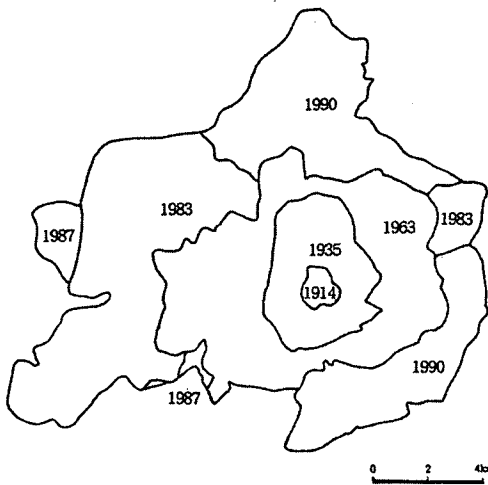


그림 1) 청주 시가지 변천도 (청주시지, 1977: 8)

4) 地理志에 관한 기초 서지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71) 韓國圖書解題.

양태진(1990) 옛책풀이. 서울: 범경출판사.

李成茂(1981) 全國地理志 解題. (한국학문헌연구소編, "全國地理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pp.3-12.

5) 淸州는 충북 도청 소재지. 도의 서남부에 위치. 원래 백제의 上黨縣이고 685년(신라 신문왕 5) 西原小京을 두고, 경덕왕때 西原京으로 올리고 940년(고려 태조 23) 청주로 고치고, 983년(성종 2)에 牧을 두고, 995년에 節度使를 두어 全節軍이라 불렀다. 그 후 많은 변천을 거쳐 1895년 청주군이 되었고 1908년에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고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잔여의 郡部는 淸原郡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시로 변경되고, 1963년 1월 1일 四州面을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柳洪烈監수, 1975: 1481)

로 고쳤고 성종 2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12개의 牧을 설치하였는데 이 주는 그 중의 하나로 되었으며 14년에 전국의 12개 주에 절도사를 두면서 全節軍이라고 불러 中原道에 소속시켰다. 현종 3년에 이를 폐지하므로 안무사로 되었으며 9년에 목으로 정하여 8개 목중의 하나로 되었다. 본 주에 소속된 군이 2개, 현이 7개 있으며 관할 하에 知事府가 1개, 知事郡이 2개, 縣令官이 2개 있다. … 6)

이외에 청주에 속한 燕山郡, 木州, 鎭州, 全義縣, 淸川縣 道安縣, 靑塘縣, 燕岐縣, 懷仁縣 등의 군현을 연역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 지명의 유래와 연역을 나열하는 정도로 매우 소략하여 당시의 都市像을 짐작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고구려, 백제와 신라시대 이래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한 도시가 지니는 역사적 근원과 사실만을 확인하는 의미만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문헌에 나타나는 '上黨'과 '西原'이라는 옛 지명은 현재까지도 도로, 공원, 대학 등 공공시설의 명칭과 지역중심의 행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중요한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즉, 행정정적인 명칭인 '청주'와 함께 이 옛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도시가 지니는 연륜에 자부심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등 시민들에게 소속감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世宗實錄」〈地理志〉의 淸州牧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 본래 백제의 上黨縣인데, 신라가 차지하여 神文王 5년에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에 西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 23년 庚子에 청주로 고치었다. 成宗 2년 癸未에 처음으로 12牧을 두었는데, 청주는 그 하나이다. 14년 乙未에 12州에 節度使를 두어 淸州全節軍이라 불렀고, 顯宗 3년 壬子에 절도사를 폐하고 按撫使로 고쳤으며, 9년 戊午에 淸州牧으로 정하니, 8牧의 하나가 되었는바, 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경상도 尙州에 이르기 72리, 서쪽으로

燕에 이르기 29리, 남쪽으로 文義에 이르기 14리, 북쪽으로 鎭川에 이르기 23리이다. … 隸수가 1천 5백 89호요, 인구가 6천 7백 38명이다. … 땅이 기름지고 매마른 것이 반반씩이며, 기후가 차고 더운 것이 알맞다. 墾田이 1만 8천 1백 93결이요 (논이 3분의 1이 약하다.), 土宜는 오곡과 조·녹두·팥·참깨·뽕나무·산뽕나무·배나무이다. 土貢은 은행·꿀·밀·대추·족제비털·칠(漆)·잡깃(雜羽)·지초·종이요, 약재는 삼주뿌리(白朮)·마뿌리(山藥)·연밥(蓮子)·인삼·흰바꽃(白附子)·마름(菱仁)·가시연밥(芡仁)이요, 土産은 礶礮(淸川縣 礶石川에서 난다.)·朱土이다. 陶器所가 2이니, 하나는 州 북쪽 자가골(加左谷)에 있고, 하나는 州 북쪽 쇠목(牛頂)에 있다. (모두 하품이다.) 邑石城(둘레가 1천 84보요, 안에 우물이 13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驛이 4이니, 울봉(栗峯)·쌍수(雙樹)·저산(猪山)·장명(長命)이요, 봉화가 2곳이니, 것대(居次大)(州의 동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文義 所伊山에, 북쪽으로 鎭川 所伊山에 웅한다) 猪山驛城山이다. … 관할(所領)은 郡이 2이니, 天安 沃川이요, 縣이 17이니, 文義·청안·진천·竹山·稷山·平澤·牙山·新昌·溫水 全義·燕·木川·懷仁·靑山·黃澗·永同·報恩이다. 7)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볼 때 「高麗史」〈地理志〉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주의 인구 토질 기후 특산물 등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종합적 서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都市像을 짐작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이 사료의 편찬 목적이 국권과 왕권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에 통치 자료를 목적으로 인구, 경제,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료가 갖는 또 다른 가치로 인구 산업 등 당시의 도시간 정량적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 문헌에서는 특히 일제시대 초기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자취가 남아있는 淸州邑城의 규모를 최초로 밝히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世宗代에 확립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儒敎文

6) 「高麗史」卷 第56, 地制10. 사회과학원(북한) 고전연구소 고전연구실(1964) 고려사(5). 아름출판사: 422-438.

7) 「世宗莊憲大王實錄」 제149권 〈地理志〉24.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2) 광명인쇄공사: 88-89.

화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던 시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政治·經濟·軍事關係記錄 뿐 아니라 禮·俗·詩文 등 儒敎의 文化要素가 보다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朝鮮朝 儒敎文化的 確立期에 집대성된 官撰地理志의 典型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淸州牧에 관하여 언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치연혁”, “속현”, “진관”, “관원”, “신증”, “성씨”에 이어 “풍속”條에, 人多豪傑 : 고려 태조가 말하기를, “청주(淸州)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에 호걸이 많다.” 하였다. “형승”條에, 東南之走集 : 李崇仁이 李慕를 전송하는 글의 서문에, “청주(淸州)는 실로 동남쪽의 집합지로서, 그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사업이 번잡하다.” 하였다. 地大民稠 : 盧淑同의 鄕校記에, “西原은 전도(全道)의 본營이요,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 하였다. 境壤遼曠 : 李英耆의 鄕校記에, “구역이 넓고 인재의 많음이 실로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산천”條에, 唐羨山 : 고을 동쪽 1리에 있는 鎮山인데, 土城 터가 있다. … 椒水 : 고을 동쪽 39리에 있는데, 그 맛이 후추 같으면서도 차고, 그 물에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세종과 세조가 일찍이 이 곳에 행차한 일이 있다. ○ 房文仲의 시에, … 향기로운 液體가 신묘하게 엉기어 백병을 물리치고, 푸른 물줄기는 흘러흘러 三農을 살리네. … ○ 李承召의 시에, “하늘과 땅이 瑞氣를 빚어 신령스런 샘이 나니, 世祖께서 이해에 수레를 멈추었네. 모든 풍류 소리(鈞天) 임금 계신 곳에 들러움을 맞이하고, 다투어 고운 해가 虞淵에 목욕함을 우러러 보았다. …” 하였다.

“성곽”條에, 邑城 : 둘로 쌓았으며, 둘레가 3천 6백 48자이고, 높이가 8자인데, 그 안에 우물 13개가 있다. “누정”條에, 拱北樓 : 고을 북쪽 3리에 있다. ○ 白文寶의 應製詩(임금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 서문에, “때는 辛丑年, 임금의 수레가 福州로부터 尙州를 거쳐 옮겨와, 行宮이 淸州에 머무르게 되었다. 壬寅年 가을 9월 19일 에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賀正表를 淸州 郊外에서 올리고, 이어 拱北樓에 남시어… ○ 고려 權漢功의 시에, “… 옛 길은 단풍 든 나무 사이로 뻗었고, 맑은 못에는 푸른 하늘이 거꾸로 비치었다. 머뭇거리어서 해는

지려는데, 산 빛은 나의 시름을 자아 내누나.” 하였다. 고려 申 의 시에, “고을과 산천이 좋으니, 백성이 太初를 즐기네. …소나무 참나무 우거진 봉우리가 빼어났고, …”

望僊樓 : 客 동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取景樓이다. 至正 辛丑年(공민왕 10년)에 고려 공민왕이 흥건적을 피하여, 안동으로부터 이곳에 옮겨와 수개월 동안 머물렀다. …누각은 오랫동안 헐어 있었는데, 天順 辛巳年(세조 7년)에 목사 李伯常이 새로 重修하고, 韓明澮가 누각의 扁額을 고쳐서 「望僊樓」라 하였다. 李宜茂의 賦에, “이 누에 올라 쉬노라니, 먼 변방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구나. 하늘의 그지없이 넓음을 바라보니, 문득 마음은 넓어지고 정신은 평온해 진다. … “신증”條에, 淸賞堂 : 동헌 북쪽에 있다. “학교”條에, 향교 : 고을 동쪽 2리에 있는데, 正統 甲子年(세종 26년) 봄, 세종이 椒水에 행차하였을 때 서적을 내리었다. “사묘”條에, 社稷壇 : 고을 서쪽에 있다. 文廟 : 향교에 있다. 城隍堂 : 唐 山에 있다. 勳壇 : 고을 북쪽에 있다. “총묘”條에 韓明澮墓 : 고을 서쪽 39리에 있다. “고적”條에, 古上堂城 : 栗峰驛 북쪽 산에 있다. 둘로 쌓았고 둘레가 7천7백73자, 성안에 우물 열 둘이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 졌다. 父母城 : 고을 서쪽 15리에 있는데 둘로 쌓았고, 둘레는 2천4백27자이고, 성안에 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 졌다. 山城·, 猪山城·, 彌勒山城·, 謳羅山城·, 上嶺山城·, 李穡의 記에, “淸州 椒洞에 郭氏의 밭이 있었다. …郭氏의 大父 壯元公은 至元(원나라 세조 때의 원호) 무렵에 충직하고 문장을 잘하였다. 그가 (조공을 하지 않는 일본을 회유하기 위해) <일본에> 간 뒤에 과연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임금과 신하들이 애석하게 여기어 벼슬과 토지를 주었으니, 지금의 추동 그것이다. …그의 아들 正郎君은 종신토록 슬피하여 號哭하고, 벼슬에 나가기를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자 通憲公이 추동 가운데 정자를 짓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심어 놓고 <할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정자 이름을 永慕亭이라 하였다. … ○ 韓脩의 시에, “…세 정자를 알맞은 곳에 지으니,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네. 못도 파서 샘물을 끌어들이고, 아름다운 화초도 심어 새들이 노

래하게 하였네. ...아,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서, 큰 선비(巨手)가 記文은 지어 竹帛을 빛냈도다. 넓고 넓은 천하의 백억만이며, 몇 사람이나 신화와 지식의 구실을 다하였는가. 알겠노라 永慕亭의 3대는 천하와 후세가 본받아야 하리” 하였다.

구리 돛대(銅檣) : 고을 성안 龍頭寺에 있다. 절은 폐사가 되었지만 돛대는 남아 있으며, 높이가 10여 길이다. 세상에서 전하거늘, “처음 州를 설치할 때에 術者의 말을 써서, 이것을 세워 배가 가는 형극을 나타내었다.” 한다. ○ 李承召의 시에, “우뚝 서서 백자나 높이 솟았으니, 오가는 사람이 彷徨하는 것 같다 하여 누가 구리 기둥을 鬢溪 위에 옮겨다 세웠는고, 漢나라 동산의 금줄기(金莖)인가 싶구나. 뿌리는 깊이 박혀 地軸에 이었고, 꼭대기는 구름밖에 치솟아 은하수를 꿰뚫었네. 옛사람 이를 세운 뜻이 없지 않으니, 큰 고을과 더불어 한 지방을 진압함이라네.” 하였다.

은행나무(鴨脚樹) : 고려 공민왕 때에 李貴生 등을 청주 옥에 가두고, 門下評理 尹虎 등을 파견하여 국문 하였으나 여러 죄수들이 모두 불복하였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 앞에 냇물이 넘쳐 성의 남문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북문까지 뻗치니, 성안의 물 깊이가 길이 넘어 官舍가 물에 잠기고, 백성들의 집은 거의 없어 졌다. 客館 문 앞에 은행나무 수십 그루가 있었는데, 獄官들이 창황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죽음을>모면하였다. 왕이 수재로 교서를 내리어 <죄수들> 모두 놓아주도록 하였다.

“題詠”條에, 二川西入錦江流 : 鄭以吾의 시에, “큰 들은 남쪽으로 文郡에 이어서 사라지고, 두 냇물은 서쪽으로 금강에 들어 흐른다.” 하였다. ... “廟祠”條에, 華巷書院 : 선조 경오년에 세우고 현종 경자년에 賜額하였다. 華陽書院 : 숙종 병자년에 세우고 그 해에 사액하였다. 丙申年에 왕이 친필로 사액하였다.⁸⁾

위 내용과 같이 풍속, 형승 등의 條에서는 비록 추상적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사료와의 차이가 있다. ‘호결과 인재가 많음’,

‘사업이 번잡함’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기록이다. 이러한 지역 이미지는 현대 도시에 하나의 별칭⁹⁾(ninkname)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도시경관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이미지 요소라 판단된다.

산천 條에 언급된 ‘토성 터’는 현재의 문화동 일대의 동공원의 정상부로 현재에도 토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정 약수에 대한 기록과 함께 邑城은 이전 사료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尺度화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望僊樓는 현재 본래의 위치로부터 이전되어 옛 모습을 찾을 길 없으나, 이 기록에 의해 당시의 모습과 주변 경관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수록된 詩文등은 작자의 주관적 감상을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나, 供北樓 주변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점, 식재 상황을 짐작케 하는 등 여러 가지 경관적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구리돛대로 표현된 鐵鐘竿에 대한 기술은 풍수설에 의해 당간이 건립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鴨脚樹와 관련된 홍수의 기록과 이 밖의 잦은 범람과 침수에 대한 기록은 일제시대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자주 나타난다. 칠당간과 鴨脚樹는 오늘날에도 청주시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題詠”條에는 경관을 묘사한 많은 시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각적 자료가 부족한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漢詩의 기본구조인 ‘先景後情’의 원칙 즉, 서두에 경치를 묘사하고 여기에 작자의 감상을 덧붙이게 되는 틀을 갖추므로 이를 이용하여 당대의 경관을 연구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顯宗朝에 편찬된 「東國輿地志」는 그 편찬자와 편찬 연대가 확실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壬亂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李成茂, 1981)이며, 이에 언급된 내용은,

“형승” 동쪽으로 上黨이 우뚝 서 있고, 서쪽으로 작수(鵠水)가 휘돌아 흐른다. 동남쪽으로 달려가 모

8)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5권, 민족문화추진회譯(1969). 민중서관: 482-510.

9) 이규목(1992) pp.255-277을 참고할 것.

인 형상이다. 고려때 시인 이승인이 이르기를 청주는 동남으로 달려가 모인 형상이라 그 땅은 넓고, 그 백성은 수고롭고, 일은 번잡하게 많다고 했다. 땅은 평탄하고 물은 맑다. 평야가 남쪽으로 이어졌고, 두 시대가 북으로 아우른다.

“풍속” 인물 중에는 호걸이 많이 배출되다. 선비는 經史(경서와 역사서)를 익히고 백성은 밭 갈고 누에치기에 힘쓴다. “산천” 不夜洞 괴관산 아래에 있는데 골짜기가 많고 깨끗하고 반석이 평탄하고 흰 것이 마치 구슬과 같다. 긴 내가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 경계에 구슬을 밟는 것과 같이 특별하고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밝기가 대낮 같다. 鶴川 청안현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흘러 청주 북쪽 20리에 이르러 오근탄에 이르고 서쪽 15리에 이르러 진목탄이 되고 또 남쪽으로 흘러 전의현을 지나 동진에 이르고 공주 경계 금강으로 들어간다. … 靑川 청천은 청천현에 있다. 그 근원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보은 속리산에서, 또 하나는 청안현 귀승산에, 또 하나는 동현구에서 시작하여 은현에서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물이 맑고 깨끗하여 현명으로 삼았다. 청천 또한 이렇게 이름되었다. 북쪽으로 흘러 괴산을 지나 달수가 된다. …¹⁰⁾

위 내용에 의하면 華陽洞의 옛 명칭은 경관 특성을 묘사하여 당시에는 不夜洞으로 불리었던 점과 ‘맑은 내’라는 환경 특성이 지명으로 유래된 것 등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椒泉, 供北樓, 望僊樓, 靑讌堂 등의 설명이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외에 “울곡 이이가 청주목사를 지내면서 백성의 교화에 힘썼다”와 같이 청주와 관련된 인물, 열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울곡과 관련된 ‘서원향약비’ 등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예부흥이라고 할 만큼 각종 문물의

성황을 이루었던 英祖 · 正祖 時代를 거치며 實學者인 申景濬에 의해 편찬된 「增補文獻備考」〈輿地考〉는 歷代國界, 郡縣沿革, 山川, 道里, 關防, 間島境界, 宮室의 7항목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도양, 輿地考解題) 〈輿地考〉 9권. 山川 條에 언급된 청주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唐羨山 : 동쪽 1리에 있다. 上嶺山 : 일명 上岑山이라 하고 또는 上黨城이라 일컫는다. 동쪽 15리에 있다. … 괴관산(串山) 일명 落影山이라 한다. 동쪽 80리에 있다. 華陽洞이 있는데, 白石이 비탈지게 서리었고, 맑은 내(川)가 가로 펼쳐져 동의 골짜기(洞壑)는 비록 밤이라 하더라도 光朗하기가 낮과 같다. 國士峯 : 남쪽 20리에 있다. 宣祖 壬辰年(1592년 선조 25년)에 趙憲이 여기에서 왜적을 격파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引頸山 : 남쪽 30리에 있다. 높은 데 오르면 京城을 바라볼 수 있는 까닭으로 이름하였다. … 九老洞 : 동쪽 50리에 있다. 泉石의 승경(勝)이 있고 예전에 9사람의 노인이 여기에서 살았던 까닭으로 이름하였다. … 椒井 : 동쪽 39리에 있다. 그 맛이 후추(椒)와 같으며 찬데,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 世宗 · 世祖가 일찍이 여기에 거동하였다.¹¹⁾

〈輿地考〉14권. 關防 條에는 邑城과 上黨山城, 父母城, 山城, 猪山城, 彌勒山城, 謳羅山城, 上嶺山城, 古上黨城의 기록이 있는데, 들레와 우물의 수 등을 언급하고 있다. 宮室 3의 外方宮室 篇 ‘청주’에는 供北樓에 관한 언급만이 간략히 있을 뿐이다.

供北樓 州의 북쪽 3리에 있다. 고려말에 세웠는데, 조선조 李存身이 중건하였다.¹²⁾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증환의 「擇里志」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지형 풍토 풍속 교통 각 지방의 古事인

10) 形勝 上黨雄峙於東鶴水 紆於西 東南之走集 高麗李崇仁序淸爲州實東南之走集也 其地廣其民 其事元以繁地平水 淸州記淸之爲州邑居平坦其東則上黨雄峙 西南文義 燕 諸山環繞地平水清境綿曠壤 平野南連二川北交 風俗 人多豪傑 高麗太祖曰靑州土地沃饒人多豪傑 士習經史民務耕桑 山川 不夜洞 在 串山下 洞壑清爽 盤石平鋪潔白如玉 長川布其上如展帛 跳珠境界殊異 雖夜晃朗如晝… 鶴川 自淸安縣界南流至州北二十里 爲吳根灘至州西三十五里 爲眞木灘又南流過全義縣 東津到公州界入錦江 靑川 在靑川縣 其源有三 一出報恩縣俗離山 一出靑安縣坐龜山 一出同縣仇自隱峴合而爲一. 其水潔靑 故名縣名 靑川亦以此也 北流經山郡爲達水. 「東國輿地志」: 144.

11) 「增補文獻備考」第 21卷 〈輿地考〉9. 山川(3): 174-175.

12) 「增補文獻備考」第 39卷 〈輿地考〉 宮室 外方宮室: 281.

물 등을 포괄한 人文地理書의 대표적 저작으로 士民總論, 八道總論, 卜居總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八道總論에서 각 도의 일반적 개괄에 이어 다른 도와의 차이와 특징을 밝힘으로써 地方志에 해당하고, 卜居總論은 인문지리적 總說에 해당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충청도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는...물산이 많기로는 영남이나 호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천이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 가까운 남쪽이어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서울에 대대로 사는 집 가운데 이 도에다 논밭과 집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골라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³¹⁾

산천이 '평온함', '아늑함'은 주관적 판단이라 할 수 있으나,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특성으로 지역여건이 갖는 잠재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지역적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또 淸州牧에 대하여,

...청안·청주·문의가 있다. 그 가운데 청주가 가장 큰데, 공주에서 동북쪽으로 100리 되는 곳에 있다. 고을은 거대령 밑에 있으며, 지역이 작천 서쪽을 넘어 목천 연기 사이로 끼여들었다가 서산에서 그쳤다. 서산 한 줄기가 구불거리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모두가 흙산이고 돌이 없다. (그 산줄기가) 작천 서쪽에서 휘돌아, 북쪽으로는 목천 전의에서 남쪽으로는 연기까지 산 빛이 아름답고 고우며 들의 형세도 겹겹이 감싸서, 지관들의 말로는 살기를 벗었다고 한다. (이 일대는) 금산 옥천에 비하여 더욱 평탄하고 땅이 매우 기름져, 오곡과 목화 가꾸기에 알맞다. 작천 동쪽은 큰 들판인데, 동남쪽으로 40리까지 통하였다. 들판 가운데 산 하나가 있는데, 봉우리가 여덟이므로 이름을 八峯山이라고 하였다.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였고, 등성이와 기슭이 들판 가운데 서렸으며, 동쪽으로 거대령과 마주서 있

다. 흰 모래, 얇은 시내에 평평한 등성이, 아름다운 산기슭이 경기도 장단읍과 비슷하다.

(청주) 고을은 서향인데, 지대가 낮고 강물이 높아서 해마다 물난리가 날까봐 걱정한다. 고려 말엽에 정도전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태조의 謀臣 노릇을 하였는데, 목은 이색과 陶隱 李崇仁(1349~1392) 등 여러 어진 사람들을 꺼렸다. 그래서 그들을 귀양 보낸 곳에서 청주 옥으로 잡아오게 하고, 관원을 보내 문초하게 하였다. 그런데 문초하려는 날이 되자 갑자기 큰비가 쏟아져, 잠시 동안에 물이 성문으로 넘쳐흐르고 관청 뜰까지 밀려들었다. 옥사를 다스리던 관원과 죄인들이 뜰에서 있는 나무를 붙들고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태조도 그들의 원통함을 알고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지대는 동쪽이 높고 북쪽이 비어서 은은히 살기가 있다.

...(청주에서) 동쪽으로 거대령을 넘으면 上黨山城이 있고, 그 동쪽에는 靑川倉이 있다. 倉 서쪽은 申氏 마을이고, 남쪽으로 작은 고개를 넘으면 引風亭 玉流臺가 있는데 卞氏들이 사는 곳이다. 큰 산들 사이에 시내와 바위가 자못 고옥한 경치를 이루었다. 또 동쪽으로 커다란 골짜기를 건너면 龜灣인데, 골짜기와 산이 아름답다. 상당과 청천을 아울러 山東이라고 하는데, 지대가 산 위에 있으므로 바람기가 차가워서 청주 들판보다는 못하다.¹⁴⁾

'흙산이고 돌이 없음, 흰모래, 얇은 시내에 평평한 등성이, 아름다운 산기슭, 서향이며, 지대가 낮고 강물이 높아서 해마다 물난리가 날까봐 걱정' 등으로 요약되는 청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실제적인 답사를 통해 서술된 내용으로 보여진다. 산세, 지형, 지질 등 자연환경에 대하여 주로 시각적 측면에 의존한 경관적 이미지를 서술하기도 하며, 타 지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는 등 다른 官撰地理志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기후조건을 근거로 청주 지역이 비교적 온화하여 살기에 적합하다고 서술한 내용 등은 본 사료가 지니는 독특함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저자는 지역성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

13) 「擇里志」 허경진譯(1996) 八道總論: 119.

14) 前掲書. 八道總論: 132-134.

15) 地理(풍수에서 말하는 지리), 生利(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유리한 위치), 人心(세상 풍속이 아름다운 곳), 山水(사람을 즐겁게 하고 인심을 순박하게 함)의 조건을 종합하여 可居地의 質을 福地, 德地 또는 吉地, 避兵地, 避世地, 景勝地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 관점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擇里志」의 卜居總論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의 4가지 기본요소로 地理, 生利, 人心, 山水¹⁵⁾를 들고 있으며, 각 지방별로 이에 관한 質에 대하여 비교와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간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시사하는 언급을 단정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현재의 판단은 여러 견해가 있다. 택리지의 서술은 “과거와 현재에 거의 변하지 않은 자연환경, 산, 수, 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視知覺의인 평가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이중환이 실사한 山水에 대한 경관평가의 한 방법으로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고,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대상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실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전미경과 정기호, 1995: 186-187)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면에 「擇里志」가 지니는 한계와 부정적 요소로, “①풍수사상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②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보았으며, ③형평성을 잃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노출, ④지리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조기영, 1996: 292) 특히 저자인 이중환 자신이 본문 중에 “전라도와 평안도는 내가 가보지 못하였지만,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는 내가 많이 가본 곳이다.” (허경진譯, 1996: 222)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 것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八道人心 우리나라 팔도 가운데 인심이 순박하고 두텁기로는 평안도가 으뜸이다. 그 다음에는 경상도의 풍속이 질박하고 진실하다. 함경도는 지역이 오랑캐 땅과 닮아 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황해도는 산과 물이 험하기 때문에 사납고 모진 백성이 많다. 강원도는 산골 백성들이어서 어리석고, 전라도는 오직 간사한 짓을 좋아하여 올바르게 바르지 않은 일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는 도성 밖 들판 고을의 백성은 물자가 보잘것없고, 충청도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 쫓는다. 이것이 팔도 인심의 대략이다.¹⁶⁾

「靑丘圖」 「大東輿地圖」와 함께 古山子 김정호의 세 金子塔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大東地志」는 「靑丘圖」의 地誌의인 면을 확대하고 보완한 것(李丙燕, 1976)으로 우리나라 인문지리에 대한 폭 넓은 내용을 담은 私撰地理志이다. 이중 청주가 위치 한 형국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형승” 왼쪽으로 큰산과 협곡을 끼고, 오른쪽으로 넓은 평야가 있다. 큰물이 가운데를 관통하고, 큰 메가 둘러있다. 지경이 넓어 백성과 물산이 풍부하다. 북으로 충원을 당기며, 남으로 공산을 포용한다. 영남과 호남등 3동에 걸쳐있어 무역과 세력을 불리기에 마땅하다. 자고로 用武之地(무력을 쓰기 좋은 곳, 혹은 군사적 요충지)라 했다.¹⁷⁾

여기서 언급되는 ‘큰산과 큰물’은 우암산과 무심천을 지칭하는데 이 두 자연요소는 현재에도 청주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 唐茨山, 華陽洞을 비롯한 山水, 성지, 봉수, 창고, 역참, 교량, 토산, 누정, 廟展, 사원, 典故 등에 대한 기록은 앞서 언급한 사료들과 큰 차이가 없다.

Ⅲ. 결과 및 고찰

이상과 같이 살펴본 우리 나라의 조선 중기 이래로 편찬되어온 각종 地理志들은 그 내용과 저술의 특색함에 있어 가치 있는 사료들이다. 특히 官撰地理志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志〉」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찬되어 세계 지리학사 상에서도 그 내용의 충실함이 인정되고 있는데, 노도양(1968: 1-5)은 현대 지리학에서 본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재 내용의 正確性, 둘째, 地域性의 파악, 셋째, 산업의 중요시, 넷째, 地人

16) 「擇里志」 허경진譯(1996) 卜居總論: 191-192.

17) 形勝 左據嶺岷右挾原野 大川中貫巨岳盤紆境壤遶曠 民物富繁北控忠原南抱公山處湖嶺三道 地衝應援易及勢得宜 自故爲用武之地 「大東地志」: 130.

18) ⑧연혁, ⑨사경(위치와 면적), ⑩산천(진산 명산 대천 관광 요해), ⑪궐토(토양), ⑫풍기(기후), ⑬토의, ⑭호구, ⑮군정(시위군 진군 선군), ⑯성세(인물), ⑰간전, ⑱토산 토풍, ⑲약재, ⑳목장, ㉑어량, ㉒염소, ㉓철장, ㉔도자기소, ㉕고적(산성 읍성 능묘 사당), ㉖역전(봉화), ㉗漕運

相關論 에 맞는 항목 排列을 들고 있다. 특히 편찬 항목¹⁸⁾의 배열에 대하여 현대 지리학의 중심 思潮를 이루고 있다는 環境論의 핵심이 되는 地人相關說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역사적 고찰,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관(landschaft), 통신 교통을 망라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는 인문지리학의 원조라는 Karl Ritter가 나오기 이전 이미 300여 년 전에 地人相關論的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실천에 옮기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의 지리지에 포함되는 題詠과 인물에 관한 기록은 한 지역의 경관 묘사와 함께 사회, 문화를 상세히 설명해 준다. 「擇里志」와 같이 지리적 관점에서 서술된 私撰地理志 역시 독특

한 내용으로 많은 연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전술한 바 있다.

이러한 문헌에서 지역의 특성을 기술한 내용을 기초로 한 도시의 초기 경관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라도, 현대 도시경관과의 관련을 맺고있는 다양한 경관 요소들에 대한 모습은 추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청주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검토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추상적 이미지에 관하여 서술된 내용, 둘째, 현재까지 그 자원의 원형이 보존되거나 활용되고 있으며 청주의 대표적 경관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¹⁹⁾, 셋째, 현재는 멸실 되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리지를 통해서 파악된 청주의 초기 이미지 요소

標 題	추상적 이미지 요소	현재까지 원형이 보존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이미지 요소	현재는 멸실 되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 요소
「高麗史」 <地理志>	도시의 기원 옛지명 : 上黨, 西原	-	-
「世宗實錄」 <地理志>	땅이 기름지고 매마른 것이 반반씩이며, 기후가 차고 더운 것이 알맞다.	上黨山城 등	邑石城과 마르지 않는 우물봉화
「新增東國輿地勝覽」	땅이 기름지고, 호걸이 많다. 동남쪽의 집합지로서, 그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사업이 번잡하다. 구역이 넓고 인제의 많음이 실로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다.	唐湊山 椒水和 세종과 세조의 幸宮 구리뚝대(銅檣), 鴨脚樹, 鄉校와 世宗이 하사한 書籍 華巷書院과 왕의 친필 사액 上黨山城 등	邑城과 우물 供北樓 望仙樓 永慕亭 淸管堂 父母城과 큰못 등
「東國輿地志」	땅은 평탄하며 물은 맑다. 호걸이 많고 선비는 經史를 익히고 백성은 밭 갈고 누에치기에 힘쓴다.	鶴水 不夜洞(華陽洞) 椒井 등	供北樓 望仙樓 淸管堂 등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引頸山, 왜적을 격파한 國士峯, 九老洞의 승경.	唐湊山 上黨山城 華陽洞 골짜기와 계곡 椒井	邑城 등 여러 城址와 우물 供北樓 望仙樓 淸管堂 등
「擇里志」	산천이 평온하고 아름답다.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고, 터를 골라 살기에 가장 알맞다. 산빛이 아름답고 고우며 땅이 평탄하고 기름지다. 흰 모래, 얇은 시내, 평평한 등성이, 아름다운 산기슭.	鶴川 八峯山 鴨脚樹 上黨山城 등	-
「大東地志」	넓은 평야와 큰 물이 가운데를 관통. 백성과 물산이 풍부. 무력과 세력을 불리기에 마땅하다. (用武之地)	우암산과 무심천 唐湊山, 八峯山 등 上黨山城 華陽洞 등	供北樓 望仙樓 등

IV. 결 론

본 연구는 한 도시가 경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動因이 되는 초기의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한 도시의 초기 이미지들은, 후에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요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하는 궁극적인 연구목표를 전제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되는 조선시대, 특히 지방도시에 관한 시각적 자료가 한계로 인하여 地理志에 나타난 도시기술을 고찰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지에 기술된 내용은 첫째, 추상적 이미지에 관하여 서술된 내용, 둘째, 현재까지 그 자원의 원형이 보존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 셋째, 현재는 멸실 되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2) 추상적인 이미지로 기술된 내용은 각 문헌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언급들은 도시의 경관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현대적 도시 이미지로의 변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청주의 경우 현재까지 그 원형이 보존되어 활용되고 있는 요소가 비교적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며 경관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즉, 지속적인 보존방안 강구, 주변환경 정비, 시민 홍보와 교육 등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4) 현재는 멸실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복원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면밀한 연구와 함께 완전복원, 부분복원, 또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본래의 위치에 대한 장소성을 부각하

는 등 사안별, 요소별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될 수 있을 것이다.

5) 종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는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物理的이며 可視的인 요소의 중요성과 동등하게 非物理的이며 非可視的인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과제로는 조선시대 이후의 문헌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연구에 있어 역사의를 가진다는 것은 학술연구가 지식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관념적 논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또한 끊임없이 실천에 의해 제약되고 검증됨을 의미한다. 즉 역사의식의 인식은 사회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의 불가피한 전제이지만,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최병두, 1900; 247) 이러한 의미에서 산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古地圖와 함께 시문, 행장 등 많은 고문헌 등의 사료가 폭넓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근대 및 현대에 나타나는 인문지리지 등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특히 본격적인 도시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관한 연구, 현대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 도시의 이미지, 특히 추상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경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 용 문 헌

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1971) 韓國圖書解題.
2. 高麗史(5) 사회과학원(북한) 고전연구소 고전연구실譯(1964) 서울: 아름출판사 영인발행.
3. 김승환(1995) 일본과 부산의 도시경관계획사례 지방자치 시

19) · 鐵砲竿 국보 제41호 (1962. 12. 20지정), 청주시 남문로 2가 48-9 소재

· 上黨山城 : 사적 212호(1970. 10. 1)

· 鴨脚樹 : 지방기념물 제5호

· 椒井藥水 :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에 위치,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

· 望佛樓 : 원 위치는 북문로 1가 현 청원군청 북쪽, 청주경찰서의 동쪽이나 日帝때인 1921년에 武德殿의 신축으로 헐리게 되어 1923년에 金泰熙의 주선으로 현 위치인 남문로 1가 154번지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벽을 막고 개조하여 제일교회의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

- 대의 도시와 환경. 대구대 과학기술연구소.
4. 김승환 변문기(1991) 폐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01-115.
 5. 김한배(1994)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_____(1998)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7. 김한배·이규목(1993) 도시경관연구의 실증적, 인간주의적 측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8(4): 139-159.
 8. _____(1994) 동양적 세계관에서 본 한국도시경관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1(4): 55-68.
 9. 김정호(1864) 大東地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원본영인.
 10. 노도양(1968) 세종장헌대왕 실록 지리지 解題(세종대왕기념사업회編, "국역 세종장헌대왕 실록 지리지"). 서울: 광명인쇄공사.
 11. _____(1978) 여지도 解題(세종대왕기념사업회編, "국역 증보문헌비고 여지도"). 서울: 천풍인쇄주식회사.
 12. 東國輿地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원본영인.
 13. 세종장헌대왕실록(24). 세종대왕기념사업회譯(1972). 서울: 광명인쇄공사.
 14. 신증동국여지승람(15). 민족문화추진회譯(1969) 서울: 민중서관.
 15. 양대진(1990) 알기쉬운 옛책풀이. 서울: 법경출판사.
 16. 柳洪烈감수(1975) 국사백과사전. 동아문화사.
 17. 이규목(1986) 도시상징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_____(1988) 인간과 환경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35-45.
 19. _____(1992) 都市와 象徴. 서울: 일지사.
 20. 이병도(1976) 大東地志解題(김정호編, "大東地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21. 이상구(1986) 우리나라 도시내 역사적 공간형성의 과정과 현실. 도시문제, 21(6): 8-21.
 22. 李成茂(1981) 全國地理志 解題(한국학문헌연구소編, "全國地理志"). 서울: 아세아문화사. pp.3-12.
 23. 이영경(1994) 경관선호와 평가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 및 유사성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2(2): 1-12.
 24. _____(1997) 경관의 의미와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4): 59-73.
 25. 이증환(1714) 택리지. 허경진譯(1996) 서울: 한양출판.
 26.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7. 전미경 정기호(1995) 「擇里志」의 景觀論的 研究方向的 摸索. 한국조경학회지 23(1): 175-188.
 28. 정기호(1990) 「擇里志」의 文意的 考察. 한국조경학회지 17(3): 49-57
 29. _____(1993) 「擇里志」의 景觀論的 考察:卜居總論「山水」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1(3): 1-10.
 30. 조기영(1996) 택리지에 나타난 이증환의 실학사상(허경진譯, "택리지"). 서울: 한양출판. pp.284-293.
 31. 조정송 황기원 박재길(1998)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조경학회지 25(4): 61-81.
 32. 增補文獻備考(21)(39). 세종대왕기념사업회譯(1978).
 33. 최병두(1993) 도시 지역 환경. 서울: 한울출판사.
 34. 황기원(1989) 景觀의 多義性에 關한 考察.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35. _____(1992) 도시환경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 유병림 황기원,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보고서.
 36. _____(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한국조경학회 지방화시대의 도시 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발표논문집. pp.1-13.
 37. Banerjee T. and M. Southworth, eds.(1990) City Sense and City Design : Writings and Projects of Kevin Lynch. The MIT Press.
 38. Hough M.(1990) Out of Place : Restoring Identity to Regional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